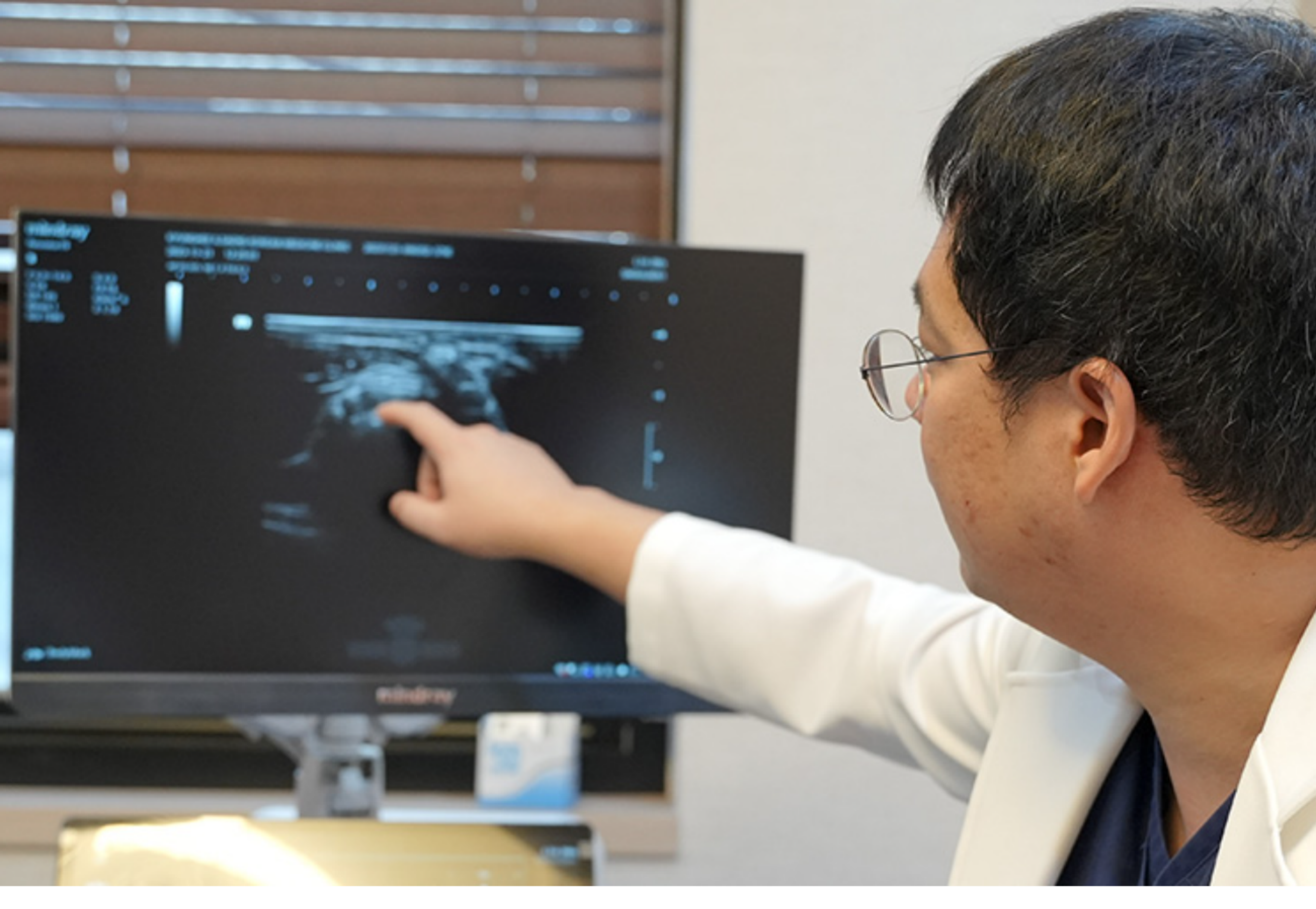


생생 진료실

혁신으로 만들어 가는 한의학의 미래
환자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하기 위한 마음

경희일생한의원

경희일생한의원은 2016년 개원 이래, 한의약의 전통적인 가치 위에 최신 과학기술과 혁신적 진료 패러다임을 접목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곳은 '왜 우리 한의원에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환자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진료 현장에서의 작은 개선부터 새로운 시도까지, 늘 고민하며 환자에게 더 나은 내일을 전하기 위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환자의 신뢰 만드는 진료 철학과 서비스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은 한약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한의학을 친숙하게 접했다. 한의대를 지망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한의사가 된 후 한의원을 개원했고, '한의약의 과학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원 초기부터 새로운 운영 방식을 시도해 왔다.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김밥 브랜드가 재료를 단면으로 보여주며 '정직함'을 전달하던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여기에 착안해서 환자가 복용할 한약의 구성 재료를 구절판에 담아 사진으로 찍어 복용법 안내문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환자가 우리 한의원에 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환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혈액검사나 초음파 등 당시 한의원에서 활용하기에는 파격적이라 여겨졌던 진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환자의 어려움을 더 정밀하게 살피고 한의학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

피부 미용·재생 치료, 한의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경희일생한의원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다루지만, 특히 눈에 띄는 분야는 피부 미용과 재생 치료다. 이전에는 통증 치료와 관리에 주력했으나, 통증 치료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체감한 김 원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피부 미용 진료를 선택했다. 이는 한의원 성장과 진료 확장의 전환점이 됐다.

한의학은 '내치(內治)'와 '본치(本治)'의 개념을 바탕으로 질환의 근본 원인을 다스린다. 경희일생한의원에서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홍조, 색소,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을 기기 치료와 병행하고, 첩약, AI 기반 생활습관 교정 솔루션을 결합해 피부 건강이 더욱 오래 유지되도록 돕는다.

이곳은 홍조와 색소 그리고 여드름 등 증상에 맞춰 레이저 기반 치료 장비와 스킨 부스터 주입 장비, 리프팅 장비를 폭넓게 활용한다. 여기에 전·후처리 장비까지 갖춰, 피부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한 피부 미용 진료를 한의학적 관점에서 제공한다.

피부 재생 치료를 위한 기술을 갈고 닦는 노력도 지속했다. 경희일생한의원이 2025년 제1회 한의미용 콘테스트에서 혈관 병변 레이저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보여준다. 또한 시술 후 눈에 띄게 개선된 환자 사례는 한의학적 피부 미용의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경희일생한의원 전경

과학적 정밀함으로 통증과 건강을 관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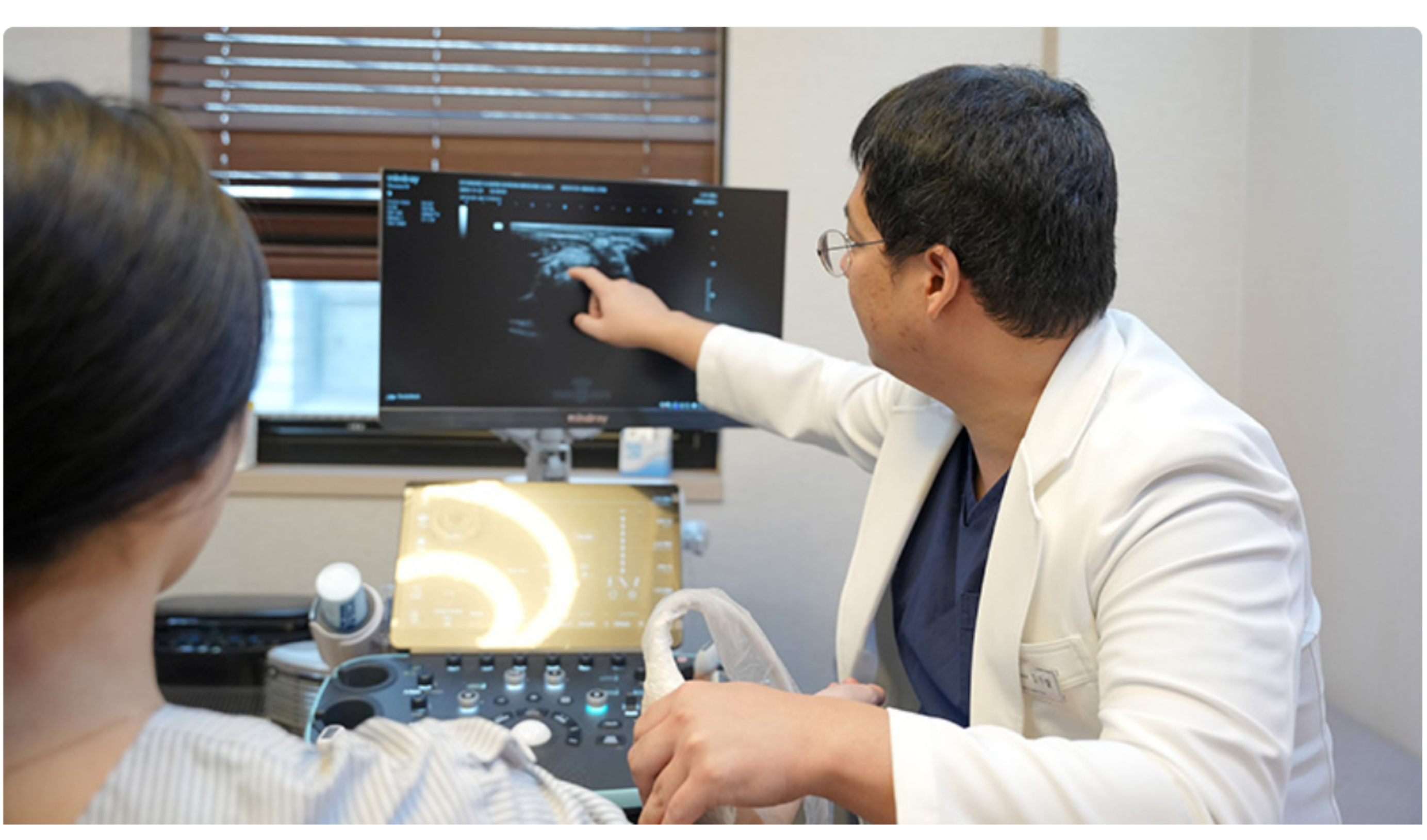
경희일생한의원은 통증 관리와 건강 증진에서도 과학적 정밀함을 추구한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부위에 침을 놓아 깊이와 방향 조절이 어려웠으나, 초음파 가이딩 클리닉을 통해 근막, 신경, 인대 등 해부학적 구조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치료한다. 특히 경추와 같이 신경과 혈관 구조물이 밀집된 위험 부위에서는 초음파 가이딩이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 모니터를 통해 침이 놓이는 과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치료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영국 BTL사의 충격파 치료기와 심부열 레이저(HILT) 등 고가의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통증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BTL 충격파는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주면서도 깊숙한 통증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장비로 평가받는다. 근처 영상의학과와 협력하여 추나 시술 전 X-ray 촬영을 통해 환자의 체형을 미리 파악하는 체형 교정 클리닉도 운영한다.

AI 기술도 진료의 핵심 요소이다. 나만의 프롬프트를 활용한 맥진기와 설진 기반 AI 처방 클리닉은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최적화된 한약 처방을 돕는다. 다이어트 환자를 위한 AI 식단 관리 앱은 음식 사진을 분석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과 칼로리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효과적인 식습관 교정을 지원한다. 김가람 원장은 이러한 첨단 기기와 기술의 도입이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한의원에서 이런 치료를 하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방 의원에서도 받기 어려운 최첨단의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만족하고, 몸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AI 청진기



최신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진단 장면

삶의 동반자, 재택의료로 확장하는 한의학의 가치

경희일생한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 진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원 10년 차 무렵 노령과 건강문제로 거동이 불편해져 점점 한의원 방문이 어려워진다는 기존 환자들의 소식이 계기가 되었다. 환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된 재택의료는 이제 경희일생한의원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진료방식 중 하나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루어지는 방문 진료에서는 로봇 재활 치료, AI 청진기를 이용한 심전도 검사, 휴대용 초음파 진단 등이 이루어진다. 한의원에 방문할 수 없는 환자도 더욱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최신의 진단기기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이러한 최신 진단기기는 중증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는 등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효율성을 입증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지역사회에서 한의원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국가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 모델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방문진료 현장 모습

한의학이 '필요한 의학'이 되기까지, 미래를 위한 연구와 도전

경희일생한의원은 현재 재택의료와 로봇 재활의 환자 적용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피부 치료 케이스들을 모아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김가람 원장은 한의학이 '곁다리의 의학'이 아닌 '필요한 의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희일생한의원의 목표는 한의사뿐 아니라 국민에게 한의학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한의학이 국민 보건 증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꾸준히 증명하는 것이다. 통증과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없이도 자생력을 이용한 자연 치유의 길을 제시하며,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으로서 한의학의 본질을 지키고자 한다. 경희일생한의원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선도적인 한의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